



2014 EBS 한자성어

[01] 각골난망(刻骨難忘)

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.

[02] 각주구검(刻舟求劍)

용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

[03] 간난신고(艱難辛苦)

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.

[04] 감탄고토(甘香苦吐) <4>

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,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.

[05] 견리사의(見利思義) <2>

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.

[06] 경거망동(輕舉妄動)

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. 또는 그런 행동

[07] 경이원지(敬而遠之)

겉으로는 공경(恭敬)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꺼리어 멀리함

[08] 고육지계(苦肉之計)

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,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

[09] 궁여지책(窮餘之策)

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.

[10] 권토중래(捲土重來)

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움을 이르는 말.

[11] 남가일몽(南柯一夢)

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

[12] 누란지위(累卵之危)

층층이 쌓아 놓은 알의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,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[13] 동병상련(同病相憐)

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,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

[14] 만고풍상(萬古風霜)

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 온 많은 고생.

[15] 만시지탄(晩時之歎) <2>

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.

[16] 망연자실(茫然自失)

멍하니 정신을 잃음.

[17] 맥수지탄(麥秀之嘆)

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.

[cf1] 풍수지탄

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.

[cf2] 망양지탄

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,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.

[18] 면중복배(面從腹背)

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.

[19] 명재경각(命在頃刻)

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룸

[20] 반대급부(反對給付)

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.

[21] 반면교사(反面教師)

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.

[22] 배수지진(背水之陣)

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[23] 배은망덕(背恩忘德)

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.

[24] 백골난망(白骨難忘)

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,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.

[25] 백년하청(百年河清)

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.

[26] 백척간두(百尺竿頭)

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,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.

[27] 부화뇌동(附和雷同)

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.

[28] 비분강개(悲憤慷慨)

슬프고 분하여 의분이 북받침.

[29] 사고무친(四顧無親)

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.

[30] 사면초가(四面楚歌) <2>

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,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

[31] 사생취의(捨生取義)

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는다는 뜻으로,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.

[32] 삼고초려(三顧草廬)

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

[33] 새옹지마(塞翁之馬)

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

[34] 설상가상(雪上加霜)

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.

[35] 수구초심(首丘初心) <3>

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,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.

[36] 시시비비(是是非非)

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.

[37] 식자우환(識字憂患)

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.

[38] 아전인수(我田引水) <3>

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.

[39] 안하무인(眼下無人)

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,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.

[40] 어부지리(漁父之利)

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

[41] 언감생심(焉敢生心)

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,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이르는 말.

[42] 역지사지(易地思之) <2>

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.

[43] 연목구어(緣木求魚)

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[44] 오리무중(五里霧中)

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.

[45] 오매불망(寤寐不忘)

자나 깨나 잊지 못함.

[46] 오월동주(吳越同舟)

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[47] 오합지졸(烏合之卒)

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,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.

[48] 우공이산(愚公移山)

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

[49] 유비무환(有備無患)

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

[50] 유언비어(流言蜚語)

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.

[51] 이심전심(以心傳心)

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.

[52] 일진일퇴(一進一退)

한 번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 뒤로 물러섰다 함.

[53] 일촉즉발(一觸即發)

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.

[54] 자기혐오(自己嫌惡)

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함.

[55] 자수성가(自手成家)

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.

[56] 자승자박(自繩自縛)

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되다

[57] 자업자득(自業自得)

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.

[58] 자포자기(自暴自棄) <2>

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.

[59] 자화자찬(自畫自讚)

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,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

[60] 적반하장(賊反荷杖) <2>

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,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.

[61] 전전공공(戰戰兢兢) <2>

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.

[62] 전화위복(轉禍爲福) <2>

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.

[63] 절차탁마(切磋琢磨) <2>

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,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.

[64] 절치부심(切齒腐心) <2>

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.

[65] 좌충우돌(左衝右突)

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/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일 에나 함부로 맞닥뜨림

[66] 천방지축(天方地軸)

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

[67] 천우신조(天佑神助) <2>

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. 또는 그런 일.

[68] 침소봉대(針小棒大)

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.

[69] 하석상대(下石上臺)

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 뜻으로,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

[70] 학수고대(鶴首苦待)

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.

[71] 함분축원(含憤祝願)

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.

[72] 호가호위(狐假虎威)

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.

[73] 후생가외(後生可畏)

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, 후진들이 선배 들보다 젊고 기력이 좋아,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가히 두려움다는 말.

[74] 희희낙락(喜喜樂樂)

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.